



포장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

포장업계 · 단체 · 정부 협력 절실

이용두 / 산자부 디자인브랜드과 과장

디자이인 및 포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1996년 품질디자인과가 신설되었으며, 산업자원부에 2000년 11월 브랜드가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편입돼 현재의 디자인브랜드과로 새로이 재편되면서 이용두 과장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이용두 과장은 “20여년이라는 많은 시간을 공직에 종사해 오면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산업인 디자인 및 포장산업 발전에 작은 밑알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이용두 과장을 만나 디자인 브랜드과의 현재 진행업무와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정리해 보았다.

디자인 브랜드과의 업무

디자인브랜드과에 대해 주요 업무는 크게 보면 디자인, 브랜드 및 포장산업 육성 등 3대 분야입니다. 디자인 분야는 디자인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운영, 디자인 인프라 조성 및 개발지원, 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 및 디자인 경영의

확산, 디자인 정보화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브랜드분야는 브랜드 육성시책의 수립·운영, 고유브랜드상품 발굴·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포장분야는 포장산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과 포장기술개발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3대 분야에 대

한 금년도 자금지원은 디자인혁신상품개발 사업 포장 디자인 진흥정책에 대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포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포장기술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으며, 과제 당 지원액도 첨단기술개발을 위해 상향조정했다. 현재 자유개발과제는 과제 당 3천만원 이내로 총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정개발과제는 과제 당 1억 원 이내로 총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내용(포장 인력양성 및 포장 전시회 관련)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포장학과가 설치돼 있는 전문대학은 경북과학

대학, 신성대학과 금년부터 학과가 신설된 송담대학 등 3개 학교이며, 금년 7월 연세대학교(원주)에 최초로 4년제 포장학과의 설치가 승인되어 수시 모집 중에 있다. 또한 2003년 개교 예정인 경북외국어대학에도 포장학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다. 포장인력의 양성은 학계 및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많은 대학에 포장학과가 신설되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할 사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년 중 포장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1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업계에서도 인력양성에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포장 전시회는 각종 포장재료와 포장기계, 각종 포장정보자료 등 국내포장의 기술수준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는 격년주기로 개최되는 전시회를 범 포장산업 최대의 행사로 추진함과 아울러 전 세계적인 전시회로 보다 발전되도록 관련업계와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일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참석하는 세계산업디자인대회(ICSD)가 오는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 코리아디자인센터와 COEX에서 개최된다. 때문에 이번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세계디자인의 축제의 어울림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또한 54개국 151개 기관 대표 등

주요인사 약 2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우리나라가 디자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메카기능과 디자인정보의 발신기지 역할, 국제 디자인교류의 거점역할을 담당하게 될 코리아디자인센터 건립이 금년 9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포장단체를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포장협회와 포장개발연구원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포장업체나 단체에 바라는 점

IT산업의 등장, 지식정보화 산업 등 환경변화에 포장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포장산업의 중장기 발전 추진전략과 체계적인 기술개발 System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동안 포장협회와 포장개발연구원에서는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금년 5월 양기관이 합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새롭게 변모된 통합단체의 탄생이 빠른시일내에 성사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아울러 포장산업은 관련업계 및 단체만의 것이 아니며 우리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산업임을 인식하여 관련 업계 및 단체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포장산업이 장족의 발전을 거둘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권해진 기자